

발 닿는 곳마다 포토존...반전 매력에 ‘폭’

‘국가행정의 중심도시’ ‘교통 좋은 신흥계획도시’ ‘집값 비싼 지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략 이런 정도다. 세종시를 여행지나 나들이의 매력적인 목적지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생겨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이른바 ‘노잼 도시’.

물론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여행명소가 많거나 콘텐츠가 다양한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건물만 많아 삭막할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의외로 곳곳에 자연친화적인 명소들이 있다. 접근성도 좋아 자동차나 대중교통 모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당일 또는 반나절 나들이로 제격이다. 선입견만 가지고 ‘노잼 도시’로 규정당하는 게 꽤 억울할만한 곳이 바로 세종시다.

한글 ‘ㅇ’ 모양의 길이 1446m ‘금강보행교’ 곳곳 조형물·눈부신 야경 등 걷는 재미 업 이국적인 ‘세종수목원’ 바다 특별전 성황 굵 먹이 주기 체험 ‘베어트리파크’도 인기

●밤에 더 매력적인 ‘금강보행교’

금강보행교는 변화한 도심 복판에 있는 다리다. 세종시를 흐르는 금강 위에 한글의 이음(ㅇ) 모양으로 놓여 있다. 길이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상징하는 1446m로 국내 보행전용다리 중 가장 길다. 북측으로 2층은 보행자, 1층은 자전거 전용으로 운영한다. 모양이나 운영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물류수송이나 이동편리 보다는 도시 랜드마크이자 관광자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중 하나이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유망 관광지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육성해나가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는 세종시와 협력하여 금강보행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리를 건다보면 곳곳에 재미있는 조형물과 미니 분수, 40여 곳의 화단 등을 만날 수 있다. 다리 북측에는 다리 전체와 세종 도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높이 15m의 전망대가 있다.

낮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걷는 재미가 있지만 금강보행교의 매력은 밤에 더 돋보인다. 어두워져 다리 위 조형물에 LED 불빛이 켜지고 다리 전체에 경관 조명이 들어오면 멀리 보이는 세종시 발달숲과 어우러져 꽤 환상적인 야경을 만들어낸다. 현재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SNS 도심 명소 ‘세종수목원’

세종시에는 국내 첫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있다. 국내 최대의 사계절 온실을 비롯해 20개의 주제전시원에 2453종 161만 그루의 식물을 갖추고 있다. 규모가 방대해 축구장 90개를 합친 넓이다. 제대로 보려면 반나절은 투자해야 하다.

수목원을 대표하는 사계절전시온실은 봄꽃의 꽃잎을 형상화해서 디자인했는데, 건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기 좋다. 지중해전시온실, 열대전시온실, 특별기획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중해식물 전시원에는 32m 높이의 전망대가 있고, 열대식물전시원은 5.5m의 공중데크길을 조성해 해외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1 국립세종수목원의 한국전통정원. 창덕궁 주합루와 부용정을 실재크기로 조성하였고, 별서정원은 소재원을 주제로 계류, 화오, 담장 등을 연출했다. 2 독특한 이음(ㅇ)자형 다리인 금강보행교의 야간 전경. 다리 경관조명이 도심 불빛과 어우러져 예뻐다. 3 베어트리파크의 향나무동산. 잘 관리된 다양한 향나무로 이루어진 정원은 고즈넉한 분위기여서 산책하기 좋다.

세종 | 김재범 기자·지연씨21

준다.

특별기획전시관에서 10월30일까지 진행되는 ‘온실 속 아쿠아리움, 바다를 품은 정원’은 꼭 챙겨볼만한 공간이다. 수목원에서 이색적으로 바다 테마의 기획전시를 마련했는데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무엇보다 기존 수목원과 다르게 아가자기하고 ‘블링블링’한 느낌으로 조성해 어디서 찍어도 흡족한 여행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할 공간 ‘베어트리파크’

2009년 문을 연 베어트리파크는 독특하게 나무와

곰이라는 주제를 연결해 ‘동물이 있는 수목원’을 표방한 곳이다. 1000여 종, 40만 여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 160여 마리의 곰을 키우고 있다. 국내서 보기 드문 희귀수종을 전시한 곳부터 다양한 분재, 엄청난 수의 비단잉어가 물속을 오가는 모습이 장관인 연못 등 수목원 곳곳에 볼거리를 골상곳에 배치했다. 수목원 상징과 같은 반달곰 동산에서는 반달곰과 불곰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파크에서 파는 당근막이를 누는데 눈치 빠르게 관람객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능청스런 모습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만 하다.

세종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여행

스포츠동아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15

교원투어 영역 확장 본게도 “연내 국내 톱3 여행사 도약”



장동하 대표

학습지 교육사업으로 친숙한 교원그룹이 본격적인 여행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교원그룹은 5월 여행 전문법인 교원투어(대표이사 장동하)를 출범한 데 이어 최근 여행 전문브랜드 ‘여행이지’를 론칭하고 19일 이와 관련해 ‘성장 비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행이지’는 교원투어 마스터 브랜드로 고객별 여행 목적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상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종합여행사다. 간담회에서 장동하 교원투어 대표이사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국내 TOP3 종합여행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여행이지’는 브랜드 주요 전략으로 우선 정형화된 패키지 상품에서 벗어나 브랜드 차별성을 부각한 ‘베스트 패키지’를 내세웠다. 또한 채널 전략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각각 활용하는 두 트랙 전략을 표방했다.

특히 업계 후발주자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교원그룹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룹사를 포괄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핵심인데, 소정의 연회비를 받는 유상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 교원그룹의 상호 서비스인 ‘교원라이프’와는 대리점 연계 상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원 디지털인재 스타트업 프라이즈와의 연계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협업하고, 기술을 제휴함으로써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3월 프라이즈에서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AI기반 여행일정 추천 스타트업 마이로와 업무협약을 맺고 빅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2년만에 돌아온 ‘정남진 장흥물축제’ 30일 개막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정남진장흥물축제’가 30일부터 8월7일까지 장흥읍 탐진강 수변공원과 판매소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를 대표하는 행사인 ‘거리퍼레이드 살수대접’이 ‘장흥의 어머니 공예테 후를 호위하라’라는 주제로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장흥읍에서 진행한다. 탐진강변에서는 물풍선 20만 개를 준비해 축제기간 동안 매일 물싸움이 열린다. 대형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수상 워터 챌린지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31일부터 8월7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는 최대 2000명이 동시 입장하는 맨손물고기 잡기 행사도 열린다. 밤에는 친환경 버블 제트 폼 머신을 운영하는 EDM 파티가 열린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22일(금)			
서울	30/60	인천	20/10	춘천	60/60		
	23 30		23 28		22 30		
강릉	70/60	대전	30/60	전주	30/20		
	22 27		22 30		22 30		
광주	20/10	대구	20/60	부산	10/60		
	22 30		22 32		23 30		
창원	10/6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3 31		24 30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7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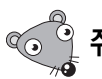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신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2일 (금) 음력: 6월 24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웅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뿔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될 듯 될 듯하면서 되지 않는다. 실망이 크다.			계절적으로는 춘분에 해당하며,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을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물라 직전의 찬란한 빛을 암시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함에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연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해야 한다.			봄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움직이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킴이 중요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강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벅찬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너고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업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서는 이익이, 직장인에게서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